제468호 〈1979년 3월 8일 창간〉 발행일 2022 년 1월 1일

ISSN 1228-9272

2022 01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KAMT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우)02811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41
대한임상병리사협회관 4층
www.kamt.or.kr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CONTENTS

01 COVER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토론회 개최

02 SPECIAL
2021년 임상병리사협회 결산

04 KAMT NEWS
중앙회 및 시도회, 분과학회 소식

10 SPECIAL
세계 각국의 임상병리사 명칭 현황 ④ (오세아니아, 아시아)

제468호
병리협보 제작에 도움주신 분들

- We pioneer breakthroughs in healthcare. For everyone. Everywhere. **Siemens Healthineers Ltd.**
-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 **LG화학**
-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 진단검사 역량의 변혁, 환자케어의 향상 **한국벡크만쿨터주식회사**
- 감염병 체외진단 퍼스트무버 **㈜코젠바이오텍**
- 고객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충일화학**
- Be Happy in Life with **봄메디칼**
- 응고검사의 믿음직한 길라잡이. **스타고**
- Lighting the way with Diagnostics, **시스멕스코리아㈜**

발행인 장인호 / **편집인** 김 철
편집위원 김대중, 장성호, 이지혜
기 자 최재석
디자인·인쇄 혜성디자인
Tel : 02)469-0577
발행소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
Tel : 02)3291-5435
Fax : 02)3291-5621

신년사 (新年辭)

'호시우보(虎視牛步)'로 100년 향한 새 도약 디딤돌 쌓자!!

起 존경하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한 리더십'의 상징인 흑호(黑虎)의 해를 맞아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국민건강 파수꾼으로 헌신하는 임상병리사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6대에 이어 27대 회장으로 연임 된 지 2년째이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접 뵙고 소통하며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협회는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등 내실을 꾀하고 있지만 대면교육 진행을 못하는 허전함은 달랠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나와 활기차고 역동적인 협회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承 '21, 진단검사 선봉 철저방역 안전 학회, 임평원 출범

지난 2년여 끝없는 코로나19 검체 검사로 숨 돌릴 틈 없는 가운데 임상병리사로서 일로매진 (一路邁進) 해주신 여러분들의 역할로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방역 선봉의 숨은 주역"이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진단검사 건수와 일부 병원의 병동 및 외래 호흡기 검체 채취 업무 이관 강요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협회는 업권 수호 및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9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 철통방역 속에서 안전하게 진행해 2022년 수원에서 개최되는 세계임상병리사 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IFBLS) 준비의 역량을 쌓았습니다.

'임상병리학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목표 아래 인증평가 사업을 수행할 임상병리교육평가원을 출범시켰고, 협회관 재건축에 착수했습니다.

轉 새해 사회적 위상 제고위해 분투

임상병리사의 '심초음파 검사 업무주체 인정', '감염관리인력배치 법제화' 등 정책활동과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일원으로서 의료기사법개정에도 적극 대응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엔 60년 전통을 자양분 삼아 사회적 위상 제고와 업무영역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전선에서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역할에 걸맞은 위상 정립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관련 정책 지원을 촉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임상병리사의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 생리기능·분자유전자 검사 등에서 나아가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과학전문가(RA)와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책임자' 진출을 선점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임상병리사 법제화를 추진하며, 시대변화에 발맞춘 임상병리사 명칭 변경 등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검사 건수 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및 독소조항인 '일반검진기관 인력 기준에서 15명 미만' 문구 삭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염 관리 취약지역인 요양기관에서 최소한의 감염 관리를 위해서라도 임상병리사를 고용해야 별도 가산점을 통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요양기관 근무 필수 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 법제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結' '60년사 편찬, 2nd 세계 대회' 협회 새 이정표 삼을 것

60년사를 발간해 형극의 길을 헤쳐 나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100년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협회관 재건축을 통해 각종 교육, 회의 등을 진행할 훌륭한 공간으로 탈바꿈 합니다.

제35차 IFBLS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협회 발전의 이정표로 삼을 것입니다.

창립 60년을 넘어 협회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과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새해 만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2년 1월 1일

(사)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장 인 호

‘인격살인 망언’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 즉각 사죄하라

장인호 협회장, ‘허위사실 유포 법적책임’ 강경 대처 긴급 성명

무차별적인 인격살인 망언을 일삼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의 즉각적인 사죄를 강력히 촉구하는 임상병리사들의 규탄대회와 피켓 시위가 기습한파를 녹일 열기 속에 열렸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진은 12월 17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 경기도의사회관 앞에서 ‘이동욱 만행 규탄대회’를 열고 명백한 허위 사실 적시로 임상병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망언을 책임지고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전국 7만2천여 임상병리사 회원 명의의 긴급성명서를 채택했다.

규탄대회에서 임상병리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은 끓어오르는 회원들의 분노의 마음을 담은 ‘진실왜곡 거짓선동 이동욱 OUT’ ‘인격 살인 망언 남발 즉각 사죄’ 등의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장인호 회장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동욱 전 회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다.

이동욱 규탄 및 긴급 성명서 채택에는 장인호 회장을 비롯 김상원·김대중 부회장, 최충열 경기도 부회장, 임대진 얼동욱 김동현 송기선 최병호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긴급 성명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검체채취 및 진단검사 업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임상병리사다.

해부학, 병리학 분만 아니라 기초의학교육과 전공업무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보건의료 전문인력이다.

하루 확진자가 7,850명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임상병리사는 불철주야 사투를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크게 칭송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임상병리사들은 국민보건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최근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SNS 등을 통해 임상병리사를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인격살인'에 다름아닌 망언과 조롱을 일삼고 있다.

임상병리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사의 신분으로 7만여 임상병리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의 저의가 무엇인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로 검체채취와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들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탈진 증후군(burnout) 상태에서 사기도 크게 떨어져 있다.

하지만 이동욱은 SNS와 유튜브, 국회 앞 집회 등을 통해 진정 의사가 맞는지 의심될 망언으로 위험을 무릅 쓴 채 현장에서 국민보건에 총력을 기울이는 임상병리사들의 공분을 샀다.

이동욱은 '임상병리사를 무자격자 알바생'으로 매도한데다 의사라는 직분으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까지 서슴없이 남발했다.

선별진료소 검체채취를 의사가 아닌 알바생이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욱은 지난 2년 동안 사투의 현장, K-방역의 주역!! 임상병리사에

대한 뉴스조차 보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망언의 당사자 이동욱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검체 채취를 몇 건이나 해봤는가?

자신의 망언이 국가적인 재난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임상병리사들 가슴에 대못을 쑤셔 박아 넣는 만행이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당신은 비인두 검체 채취 시 날카로운 걸로 찌르면 바로 뇌가 찔린다고 주장하지만 비인두 검체 채취는 면봉을 사용한다. 천공 될 정도로 강하게 찌를 일도 없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일반인들도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특히 골수검사, 내시경 검사를 모두 의사가 한다며 단순보조원으로 격하시켰는데, 1973년 제정된 의료기사법 시행으로 보건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해 온 지 무려 48년인데 이걸 철저히 도외 시 하는 당신은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의사인가?

임상병리사가 되려면 정규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전문직업분야라는 것을 정녕 모르는가?

이동욱은 의사로서 임상병리사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된 악의적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입을 벌리면 더럽다고 생각해서 임상병리사들이 자기 편하기 위해 코를 찌른다고 했는데, 코로나 검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확한 검사를 강조하며 하기도 1개, 상기도 2개, 두 종류 검체를 권고하고 있으며, 상기도는 비인두 및 구인두 도말물 혼합(1개 튜브), 하기도는 타액이 포함되지 않게 깊이 기침해 가래를 검체로 하되, 가래가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때문에 가래 유도를 금지하며 상기도 검체로 진행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이동욱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직을 수행하는 공인으로 대한의사협회가 강조한 검체의 종류와 검체 채취 지침을 알고는 있는지 공식적으로 묻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가짜뉴스를 생산,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사실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만2000여 임상병리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임상병리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7만 2000여 임상병리사에게 즉각 사죄하라!!

또한 자신을 위한 정치판에 임상병리사를 끌어들이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

임상병리사의 코로나19 검체채취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와 임상병리사 업무 방해에 대해 정식 사과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및 72,000여 임상병리사 일동

발언대

의료선진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는---송기선(국제이사)

임상병리사가 해부학을 배운다는 사실을 존경하는 이동욱 의사가 모를 리 없다. 믿고 싶지 않지만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호도한 것으로 그런 행위를 멈추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 임상병리사들은 여름철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라텍스 장갑 속 불어터진 손을 부여잡고 두 해를 보냈다. 이제 곱아서 펴지지 않는 손으로 끝도 없이 밀려드는 사람들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추위와 싸우는 두 번째 겨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우리는 의사를 선생님이라 부른다. 개인적인 인연과 상관없이 존경을 담은 언어이다. 이러한 존경은 일방적일 수 없다. 대학에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임상병리를 전공한 졸업자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망언을 하는 자에게는 더욱 그 존경을 보일 수 없다.

임상병리사들은 당당하게 보건복지부 임상병리사 면허를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문가들 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한다. 1962년 창립된 59년 전통의 대한임상병리사협회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함께하는 의료현장에서 묵묵하게 일해 온 전문가들이다.

우리의 전문성은 한 명의 의사가 시위현장에서 쏟아낸 망언으로 뭉개지거나 폄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30만의 임상병리사 가족들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거짓선동을 멈추지 않고 글로 남겨 국민들을 어지럽게 한 그 행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길을 내라!

전국선별진료소 630곳, 임시선별진료소 180곳에 당신이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알바생 무자격자로 칭한 임상병리사가 아닌 의사들을 검체 채취를 위해 파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행하라. 대안 없는 지적은 허공에 해대는 발길질과 다름없다.

선택하라!

망언을 일삼으며 추종자들과 함께 당신만의 찻 잔속 같은 곳에 살아갈 것 인지

어리석은 갈라치기에 부하뇌동 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든 일꾼들과 협동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선진국의 위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임상병리사들과 그 길을 함께 나아갈 것 인지

중앙회소식

"임상병리사"만이 수술중신경계 감시 보조인력 참여 가능
'간호사 등 참여 불가!' 논란 일단락
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 '신경생리검사 임상병리사 참여' 내세워 명확히 해

수술중신경계 감시 검사는 임상신경생리 전문의사로서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시행주체로서 이들 전문의가 적절한 감시 방식(level of supervision)에 의거해 수행하되 이 과정에 보조의사 또는 임상병리사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대한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회장 서대원)는 2021년 12월 20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인 수술중신경계감시검사 시행주체'를 묻는 질의에 대한 의견서(대수신회 2021-106)에서 이같이 회신하면서 수술중신경계 감시 검사업무에 임상병리사와 보조의사가 보조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해석의 논거로 신경계감시학회는 지침에 의거해 정확한 수술중신경계 감시를 위해서는 수술, 마취 그리고 신경생리검사 상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술은 집도의, 마취는 마취통증전문의, 신경생리검사는 임상신경생리 전문의사의 지도 하에 보조인력으로 임상병리사(또는 보조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학회는 임상병리사 이외에 간호사 등은 신경감시검사를 시행할 수 없을뿐더러 수술중신경계감시에 보조인력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아 시행주체 보조인력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영역 논란의 매듭을 지었다.

대한수술중신경계감시학회는 수술중신경계감시검사 시행주체와 관련한 해석을 내리면서 국내 수술중신경계감시 임상진료지침 2020 개정안(신경계감시학회, 신경과학회, 제활의학회, 임상신경생리학회, 근전도 전기진단의학회 공동)과 미국신경과학회 수술중신경감시 지침 개정안 2021년판을 참조했다.

예비 임상병리사 대상 "코로나19 검체채취 교육"
임상병리사협회 주관-경복대 등 주최, 전문 교육과정 24명 수료

대한임상병리사협회(협회장 장인호)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K-방역의 주역이 될 예비 임상병리사들을 위한 코로나 19 검체채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상병리사협회 주관으로 경복대 임상병리학과, 임상검사정보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시 임상병리사회, 경기도 임상병리사회, 씨젠 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유투바이오, 고려대 분자진단연구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류임주 고려의대 해부학 주임교수(대한해부학회 이사장)를 비롯 코로나 진단, 검체채취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았다.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인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체채취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에선 먼저 류임주 교수가 'Pharynx Anatomy'를 주제로 검체채취와 관련된 해부학적 경로를 입체모형을 통해 강의, 정확한 검체 채취 위치를 확인토록 했다. 또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 △What a Viruses?(경복대 김정현) △COVID-19 Pandemic(서울백병원 금문식)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분당제생병원 고용상) △Guideline for COVID-19 Sample Collection(서울아산병원 박태화) △COVID-19 Testing Procedures(픽스인스티튜트 장호은) 등의 강의를 통해 이론과 실습역량을 겸비할 수 있게 했다.

경복대 김정현 교수의 사회로 예비 임상병리사 24명 수료식에 이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는 김상원 임상병리사협회 행정부회장, 김대은 임상검사정보학회장, 김승용 부학회장, 이민우 고려대 분자진단연구회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위드 코로나대응 특별위원장, 최현덕 남양주시 전부시장, 장호은 픽스인티튜트 연구소장, 금문식 서울백병원 임상병리사,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업무 담당 임상병리사가 참석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오미크론 확산 및 위드코로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코로나19 검체채취 전문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한 예비임상병리사들에게 감사하다"며 "협회는 국민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언제나 임상병리사 윤리준수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은 임상검사정보학회장(경복대)은 "코로나 19 바이러스 검체채취와 검사 업무는 의료기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임상병리사가 진행할 수 있다"면서 "전문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 선출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12월 20일 오후 4시부터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2021년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새해 1월 3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 장인호 의기총 회장은 의료기사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 등 정책행보에 본격 나서게 된다.

우리나라 8개 의료기사단체의 명실상부한 대표단체인 의기총을 구심점으로 장인호 연합회장은 40여만 의료기사의 권익을 대변하며 날로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의료수준 향상에 부응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해나갈 각오이다.

의기총 장인호 회장은 상지대 입학홍보처장 및 보건과학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임상검사과학회장과 (사)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 이사회 의장,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아시아임상병리사연맹(AAMLS)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주시회 사랑나눔 헌혈캠페인 실시

광주광역시회(회장 서정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2021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전남 혈액원과 함께 헌혈캠페인을 실시했다. 소재 모든 헌혈의 집과 단체헌혈버스에서 진행했는데, 헌혈 전 임상병리사임을 알리고 홍보문자를 보여주게 되면 기본 헌혈상품과 함께 추가로 상품을 지급했다. 또한 SNS를 이용해 헌혈증을 올리면 캠페인 종료 후 소정의 상품을 추가 증정 할 예정이다.

소재 임상병리과 학생들을 위한 국가고시 격려행사

국가고시준비에 여념이 없는 소재 임상병리과(광주보건대, 서영대, 동강대) 학생들을 위한 응원메시지와 함께 치킨 배달 이벤트를 진행했다. 광주시회 임원진 모두는 임상병리사로 다가가기 위한 첫 계단인 국가고시에 합격해 여러 분야에서 빛을 낼 미래의 임상병리사들을 격려하며, 머지않은 내일 함께 웃으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회 제 6차 정기이사회 개최

대구광역시 임상병리사회(회장 유황림)는 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일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조재구)을 찾아 코로나로 인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백미 10kg 80포와 라면 80박스를 기탁했다. 대구시회는 2012년 연탄배달 봉사를 시작으로 10년간 남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온정을 나누고 있다. 임상병리사 출신의 대구남구 이정현 구의원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조재구 남구청장은 "2021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전해줘 감사하고, 기탁해준 쌀과 라면은 대구시 임상병리사회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시회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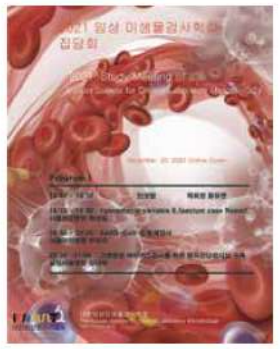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회(회장 황원주)는 지난 12월 4일 2021년 제2차 실무자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채혈 및 의료폐기물과 감염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강종원 부회장이 강의를 진행했고 더미를 포함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채혈 도구를 이용해 채혈 실습을 했다.

경상북도회

경상북도회(회장 조대현)는 2021년 11월 27일 정기이사회 및 경주에서 열린 제59회 대한임상병리사 종합학술대회 성공개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중앙회 장인호협회장과 김상원 행정부회장, 강복만 서울시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장인호 협회장은 종합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집행부 및 분회장들이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임상미생물학회 월례 집담회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학회장 황유연)는 지난해 12월 20일 월례 집담회를 가졌다. 온라인 웨비나(Zoom) 집담회에는 70여명이 등록(등록비 무료)한 가운데 △Vancomycin variable E. faecium case report(서울성모병원 하성일) △SARS-CoV-2 항체 검사'(서울아산병원 박숙자)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사를 위한 분자진단검사실 구축(삼성서울병원 정태원)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내년 학회의 방향성과 사업목표를 모색하기 위해 연초 온라인 평의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임상수혈검사학회 2021 추계학회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학회장 이은경)는 지난 12월 4일 온라인추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총 255명의 회원이 참여한 학회는 이은경 학회장의 개회인사를 시작으로 세브란스병원 김현옥 교수의 "콜드체인 관점에서의 혈액제제 수송 및 품질관리", 삼성서울병원 조 덕 교수의 "수혈필드에서 접하는 증례와 그 해결법" 2개의 특강이 진행됐고 일반연제, 구연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시상식에서는 박현준 회원이 공로상, 서숙원(중간점)최기윤 회원이 학술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22.12.01 ~ 12.31

- ▶ 12월 1일 사무국 보안시스템 설치
- ▶ 12월 2일 제468차 상임이사회
- ▶ 12월 4일 60년사 역사편찬위원회 회의
- ▶ 12월 8일 협회관 재건축 시공사 선정 회의
- ▶ 12월 11일 제171차 정기이사회
- ▶ 12월 16일 임상병리사평가교육원 회의
- ▶ 12월 17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규탄 집회
- ▶ 12월 22일 재건축 운영 위원회 회의
- ▶ 12월 23일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이사회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22.12.01 ~ 12.31

- ▶ 12월 2일 제468차 상임이사회 진행
- ▶ 12월 4일 60년사 역사편찬위원회 참관
- ▶ 12월 6일 중앙회 감사 준비회의
- ▶ 12월 7일 제2차 국가시험원 정기이사회, 국회의원 간담회(김민철, 최연숙 의원)
- ▶ 12월 8일 협회관 재건축 시공사 선정 회의 참관
- ▶ 12월 11일 제171차 정기이사회 진행
- ▶ 12월 14일 대한세포병리학회 임원 간담회
- ▶ 12월 15일 정도관리협회 발전기금회의 참석
- ▶ 12월 17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규탄 집회
- ▶ 12월 18일 AAMLS 웨비나 학술세미나 참여
- ▶ 12월 19일 경복대학교 수면다원교육 수료식 참여
- ▶ 12월 20일 제3차 국가시험원 정기이사회 참석, 제12차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의 참석
- ▶ 12월 23일 임상병리교육평가원 이사회 진행
- ▶ 12월 29일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이사회 진행
- ▶ 12월 30일 남인순 의원 간담회(포용복지국가위원회 상임위원장)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IMMUNOASSAY DxI 800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SERUM PROTEIN IMMAGE 800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LAB Automation System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IMMUNOLOGY ELISA Reagent
MAST ALLERGY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Molecular Diagnostics

(주)충일화학 CHOONG IL CHEMICAL,INC.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디지털병리도입 '직접비용 가산 · 병리판독료 분리' 정책지원 필수

"병리검사 행위 속 임상병리사 역할 충분히 보상받도록 노력할 터

<초대석> 이연수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Q. 디지털 병리 도입 시 해결해야 할 사항과 디지털 병리에 수가를 적용할 경우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병리학회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A. 디지털병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스캐너 및 저장 서버, 고화질 모니터 등의 시설과 원내 전산 시스템의 개선 등의 여러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반드시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 수가에 반드시 포함되어 상대가치점수가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런 인프라 구축비용은 그대로 원가에 포함되어 병원 내 병리과의 순수익은 더욱 낮아지므로 상대가치점수 상승이 되지 않으면 디지털 병리를 그대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Q. 위 질문에 부연해서 디지털 병리 시스템 구축 방안(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A. 디지털 병리는 스캐너, 저장 서버, 전산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진단 후 스캔 형식이 아니라 일차 진단용 디지털 병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제적인 병리 진단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병리가 원내 전산망과 연결되어 환자 진료 시에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마련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병리이미지는 환자로서는 의무기록 중 하나이므로 이 디지털병리이미지를 병원 간에 연동하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외국 디지털병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A. 외국에서도 기관별로 디지털 병리 시스템을 도입한 기관이 많으나 미국은 아직 이 디지털병리에 대한 보험 수가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로선 업무 효율성 증대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도 디지털 병리에 대한 보험 청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최근 병리 분야에 다양한 AI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AI 기술과 진단 관련 동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A. 최근 병리 분야에서 AI를 이용한 병리진단이 일부 검체에 대해 시행할 수는 있으나 이 행위는 아직 단독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지 않고 보조 행위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AI를 이용한 진단 행위가 의료행위로 인정받는다면 신의료평가 과정을 거쳐 신의료행위로 고시 되어야만 합니다.

Q. 2022년 병리학회 중점 추진 정책과제와 추진하시는 사업에 대해 말씀 해주세요.

A. 병리진단 행위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수가가 할인되는 것에 대해 병리학회는2021년 1월 수탁검사기관 기관인증취소를 시행함으로서 수가 할인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설립해 고시했습니다. 최종진단이라는 병리진단의 가치를 적절하게 보상받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병리과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이제 디지털병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병리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드는 직접비용에 대한 가산 및 병리판독료(병리진단료)의 분리를 위한 의사업무량의 현실화 등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적 정책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Q. 임상병리사와의 협력 증진 방향이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임상병리사와 병리의사는 서로 떨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병리과 운영에 필수적인 인적 요소이며 두 파트의 협조가 없다면 병리의사의 진단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또한 병리의사의 진단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다시 임상병리사의 업무 흐름도 깨지게 되는 순환구조 속에 있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업무가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병리검사를 시행하는 행위가 정당하게 처방되고 급여되는 과정을 임상병리사 및 병리의사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으로서 병리검사 행위 안에 녹아 있는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 학점은행제
임상병리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1년 과정 모집

편리한 접근성 – 망월사역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장학혜택 – 다양한 장학혜택
역사성 – 50년의 역사와 전통

망월사역 바로 앞
도봉산역 — 신한대 망월사역 — 회룡역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 031-870-3813, 3152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임상병리학전공	80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예정자)

모집기간 2022.01.03.(월)~2022.02.11.(금)
등록기간 2022.02.16.(수).~2022.02.18.(금)
납부방법 계좌이체(가상계좌)
개강예정일 2022.03.02.(수).
전형방법 선착순모집
접수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 031)870-3813
* 모집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12월 말경 http://life.shinhan.ac.kr에서 모집공고)

학점은행 모집과정 *표시는 신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전공명 (1년과정)	정원	전공명(4년과정)	정원
임상병리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간호학전공	80	태권도학전공	40
방사선학전공	80	사회복지현장실습	160

기타 모집과정

경기도 주관 사업 과정	정원	고용노동부사업	정원
귀농귀촌대학(토)	70	전기기능사	20
조경가든대학(토)	40	직업상담사과정	20
시민정원사 (금)	30		
민간경비교육(화,수,목)	70		

[대한감염관리임상병리사회 여정(旅程)]

감염관리전문인력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한 26년의 노력 그 과정을 되돌아 본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26년여 전인 1995년 8월 30일 소정의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병원감염관리 전문과정' 제 1기 수료식을 가짐으로써 인력 양성을 통한 실질적인 전문직역으로의 모습을 구체화하게 된다. 두 달 보름 후인 11월 15일 정태화 임상병리사협회장을 비롯해 석종성 박사(당시 보건담당관), 성희경·김용호 교수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및 심포지엄을 열고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KOSNIC)를 발족하여 공식 출범했다.

병원감염관리학회 창립을 기점으로 전국 각 지역 병원 감염관리 실무자 학술세미나, 감염관리 학술 집담회 등을 잇달아 열어 감염관리 전문인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갔다.

여기에 더해 협회는 감염관리 전담인력 교육 인증을 획득하여, 2013년에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첫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에 힘을 싣고자 양만길 당시 협회장이 감염관리위원회 임원진과 보건복지부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감염관리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에 대하여 역설하면서 인식제고를 촉구하는 한편 의료기관 감염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임상병리사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2014년 2월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제52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국가감염관리 정책심포지엄과 병행하여 열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 직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은 물론 협회 내에서도 감염관리는 일부 특정한 분야에 근무하는 회원들만의 일로 치부되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2014년 9월 26일 홀리데이 인 서울 성북에서 현 협회장인 장인호 당시 감염관리위원장과 151명의 발기인이 주축이 되어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산하의 감염관리임상병리사회를 창립하였으며 초대 회장으로 장인호 현 협회장이 추대 되었다. 이 자리에는 이경원 대한감염관리학회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김용익,최동익,인재근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사 및 격려사를 통해 감염관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가 확고한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인호 회장은 감염관리 임상병리사회는 "임상병리사는 병원감염과 관련한 일상적인 감염감시업무, 집단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병원체 배양업무,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국가적인 감염관리 정책에 전문성을 인정받고 국민 보건의료향상에 기여한다"고 창립의 취지를 밝혔다.

이 무렵 양만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도 장인호 감염관리위원장(현 협회장)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곧바로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여 감염관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 하였다.

현재 대한감염관리임상병리사회는 대부분의 학술 행사가 수도권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회원들을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정례 집담회를 열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각 시도회의 보수교육에서 요청이 있을시 감염관리 관련 주제 및 강사 지원 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우리 임상병리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방역 현장에서 검체 채취부터 진단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 받지 못하고 전문 지식도 없는 비전문가 집단으로 폄하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이에 손재형 대한감염관리임상병리사회장(감염관리위원장)은 분노에 앞서 회원들이 인정받고 각자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협회의 역할이라 정의하고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유관 단체와 공동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준비된 임상병리사를 양성하여 우리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임상병리사, 그 속의 일부가 아닌 우리 모두가 감염관리의 주체임을 인식하고자 분과학회 및 시도회와의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해 나가는 감염관리임상병리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0년사" 회원 에피소드 공모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가 창립60주년을 맞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0년사'를 편찬중에 있다. 60년사는 협회가 60년간의 협회와 임상병리사의 역사를 담을 예정이며 2022년 발간예정에 있다. 60년사에는 회원들의 이야기도 담을 예정에 있다. 1월 30일까지가 마감이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되어있다.

공모전 접수 및 문의

kamtreporter@daum.net 메일과
대한 임상병리사협회 사무국 02-3291-5435을 통해 가능하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대한임상병리사협회 60년사>를 제작합니다.

www.kamt.or.kr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한 에피소드를 공모합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의 지난 60년은
회원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만 솔직히 담아주세요.

원고 마감
2022년 1월 31일 까지

공모 주제 예시

- 협회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에피소드
- 각 시/도회, 학회활동을 하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에피소드
- 협회가 있었기에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에피소드
-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전하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및 에피소드
- 협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

원고 분량 및 접수방법

- 원고분량 | A4 기준 1매 내외(글씨 크기 10pt 기준)
-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 작성자 이름 및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상내역

- 최우수상 1편 | 50만 원
- 우수상 2편 | 각 20만 원
- 장려상 3편 | 각 10만 원
- 최우수상, 우수장, 장려상 이외에도 공모자 중 선별하여 기프티콘 (1만 원권)을 지급합니다.
(원고내용의 적절성에 따라 지급 공모자를 선정합니다)

문의 및 접수처

- 접수 e-mail | kamtreporter@daum.net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재석 기자 | 02-3291-5435
- 역사편찬 TF 지우현 이사 | 010-5537-9991

KAMT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보수교육 오픈 알림 •

1월 3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기간

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 수강기간

2022년도 보수교육이 1월 3일 시작됐다. 보수교육은 3년에 한 번 씩 갱신해야하는 면허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이며 1년에 8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상시 온라인 보수교육의 경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 및 이수가 가능하다.

특별기획연재(2022년 1월호)

세계 각국의 임상병리사 명칭 현황 ⑤
(유럽)

구본경 임상혈액검사학회장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 배경

▶ 2021년 병리협보 9월호부터 "Positon of Laboratory Scientist, Analyst, and Technologist in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국제의생명검사과학회지 2021년 10권(2호) 75-85면 게재 논문을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임상병리사연맹(IFBLS) 회원국의 나라별 임상병리사 명칭,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임상병리사 직업 상황 이동 방안 등을 나누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 유럽 국가직업분류에서 임상병리사 명칭

▶ 50개 유럽 국가 중에 국제임상병리사연맹(IFBLS)에 가입한 회원국은 16개국으로 서부유럽의 경우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북부유럽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남부유럽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그리스이다.

	Job title
영국	P: 2113 Biomedical Scientist AP: 3111 Laboratory Technician (ex: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아일랜드	P: 2112 Medical Laboratory Scientist AP: N/A
프랑스#	P: N/A AP: 433a Medical Laboratory Technician
네덜란드#	P: N/A AP: 3212 Medical Analyst
벨기에	P: N/A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독일	P: N/A AP: 8121-02-103 Medical Technical Laboratory Assistant
스위스#	P: N/A AP: 862-08 Biomedical Analyst (= Biomedical Analysis Technician)
오스트리아	P: N/A AP: 3212 Biomedical Analyst
아이슬란드	P: 2212 Biomedical Scientist AP: N/A
덴마크	P: N/A AP: 321210 Biomedical Analyst
노르웨이	P: N/A AP: 3212 Bioengineer
스웨덴	P: N/A AP: 3212 Biomedical Analyst
핀란드	P: N/A AP: 3212 Bioanalyst
에스토니아	P: N/A AP: 32120101 Bioanalyst
스페인	P: N/A AP: 3314 Clinical Diagnosis Laboratory Technician
포르투갈	P: N/A AP: 321201 Clinical Analysis Technician
이탈리아	P: N/A AP: 321302 Biomedical Laboratory Sanitary Technician
크로아티아	P: N/A AP: 3212 Health Laboratory Technician
그리스	P: N/A AP: 3212 Medical Laboratory Technologist
헝가리#	P: N/A AP: 3324 Medical Laboratory Assistant (ex: Medical Laboratory Analyst)
폴란드#	P: N/A AP: 3212 Medical Analytics Technician

IFBLS.

▣ 유럽 검사의학 전문가 "의사, 약사, 과학자" 포지션

▶ 검사의학 전문가 직업은 각 나라의 배경, 교육, 의료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독일 : 의사, 과학자(임상화학자)
2)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 의사, 약사
3) 헝가리 : 의사, 약사, 과학자(임상생화학자)
4) 오스트리아, 북유럽 : 의사, 분석사(임상병리사)*
5) 영국 : 의사, 과학자(임상병리사, Biomedical Scientist, 학사-석사 연계)#

▶ 과학자(임상생화학자)는 생명과학(생화학, 생물학, 화학), 약학 및 임상검사과학 석사 졸업생이 임상생화학 박사 과정(3년)과 함께 전문가 수련(2년)하는 코스가 있음.

국가	의사 %	약사 %	과학자 %
오스트리아	78	0	22*
덴마크	54	0	38*
스웨덴	55	0	45*
에스토니아	49	0	51*
핀란드	32	0	68*
영국	29	0	71#
크로아티아	0	0	100
네덜란드	8	2	90
아일랜드	11	0	89
폴란드	9	8	83
키프로스	18	0	82
리투아니아	20	0	80
루마니아	35	1	64
이탈리아	33	2	64
슬로바키아	39	0	61
체코	38	4	58
돌일	68	0	32
불가리아	74	1	25
헝가리	52	13	35
슬로베니아	3	49	48
벨기에	55	45	0
포르투갈	43	57	0
스페인	29	61	10
프랑스	27	73	0
그리스·	92	0	8

*Biomedical Analyst/Bioanalyst, 학사급 임상병리사.
#Biomedical Scientist, 석사급 임상병리사, Scientist로 인정.

▣ 참고문헌

[출처] 구본경. Position of Laboratory Scientist, Analyst, and Technologist in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2021;10(2):1-11.

[출처] Oosterhuis WP, et al. Laboratory Medicine in the European Union. Clin Chem Lab Med. 2015;53(1):5-14.

[출처] Kov□cs GL, et al. Graduate and Postgraduate State University Education of Laboratory Specialists in Hungary: Medical Doctors, Pharmacists and Laboratory Analysts. Biochemia Medica. 2011;22(2):22-29.

제 35차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가 ' New Normal, New Lab'을 주제로 2022년 10월 5일 부터 9일까지 5일에 걸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세계임상병리사연맹(IFBLS)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중앙회(KAMT)에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약 40개국 10,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학술대회로, 다양한 연제발표, 포스터 발표, 소셜 프로그램, 의료기기 및 시약 전시회등이 진행되며 해외 진단검사 전문가도 100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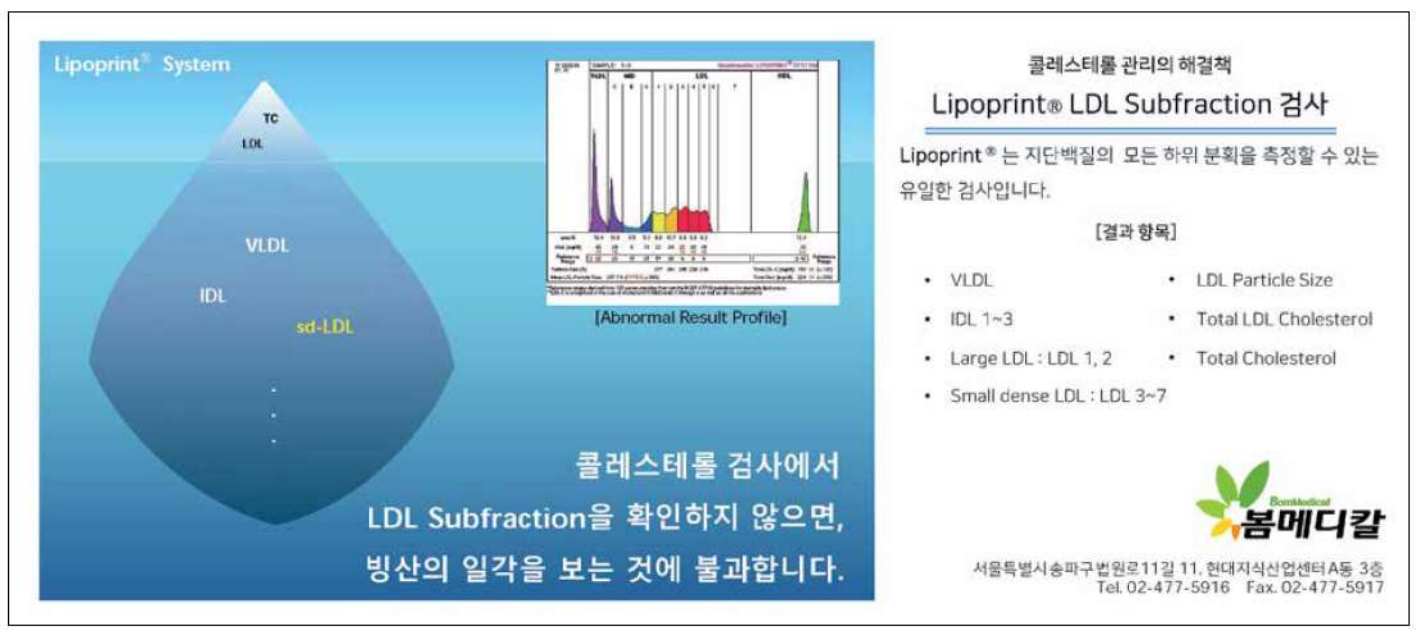
특히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이며 이외에 국내외 진단검사 기술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K-방역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

IFBL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IFBLS는 1954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창립된 단체로 세계보건기구(WHO) 등 보건의료 관련 국제기구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인류의 건강 수호와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임상병리사 기구이다.
IFBLS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약 3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IFBL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역대 개최지

앞서, 한국은 2006년도 제27차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바 있다. 16년만에 수원에서 다시 한번 개최되는 이번 IFBLS에서 한국임상병리 분야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국립암센터, 병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 데이터톤 성료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는 병리 인공지능 모델 개발 데이터톤 'National Pathology Health Datathon 2021'(이하, NPHD 2021) 시상식을 지난해 12월 17일 개최했다.

NPHD 2021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구축된 학습용 병리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구현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모델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경연대회다. 이번 행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 웹프라임, 딥노이드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소화기와 세포병리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해 암조직과 암이 아닌 조직으로 구성된 병리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국립암센터·서울대학교병원 등 6개 기관이 수집한 병리 검사 이미지 2만여 장을 기반으로 검증 및 가공 과정을 거쳐 구축된 고품질의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해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국립암센터 인공지능사업팀의 예선 심사를 거쳐 진행된 본선에는 소화기 분야 15팀, 세포 분야 14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되어 총 29팀이 참여했다. 본선 결과 소화기 분야에서 '팀명뭘로하조A(팀장 홍요한)' 팀, 세포 분야에서는 '투머치(팀장 노은선)' 팀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돼 3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소화기 병리 이미지 분야에서 우승한 홍요한 팀장은 "이번 대회에서 그동안 노력해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인공지능 학습모델 구축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세포병리 이미지 분야에서 우승한 노은선 팀장은 "데이터톤을 하게 되면 서버 문제 등 예기치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본 행사의 총괄을 맡은 국립암센터 병리과 유종우 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실제 활용 가능한 AI 모델을 개발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데이터톤에 사용된 소화기 및 세포병리 검체는 병리과에서 검사량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검체로 이번 결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실제 병리 업무에 도입하는 가능성과 실효성을 제시했다.

경북대 임상병리학과, '수면다원검사 scoring 교육'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 진단, 전 단계.

경북대는 지난 2018년 수면다원검사 보험 급여화로 수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면다원검사 scoring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지난해 12월 6일 밝혔다.

경북대 임상병리학과는 서울산학협력관 서울 산학실습거점센터에서 '수면다원검사 scoring 기초교육 프로그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 scoring 기초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ResMed Healthcare Korea의 후원으로 미국수면기사(RPSGT) 자격증을 보유한 국내 대형병원의 임상병리사들이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 19일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에 20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수면다원검사는 수면장애(수면무호흡증, 불면증, 기면증, 하지불안증후군)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임상병리사가 검사 진행 및 Scoring을 실시한다.

Scoring은 수면 전문의가 수면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전 단계이다.

해당 과정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이 필요하며, AASM(미국 수면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한 진행이 요구된다.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는 김대진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2018년 수면다원검사 보험 급여화로 수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임상병리사의 일자리도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기획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코젠바이오텍
감염병 진단키트 전문기업
|주| 코젠바이오텍
K-방역, K-바이오 그 시작점에 항상 코젠바이오텍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진단키트
✓ WHO·CDC 지정 우려·관심 변이 스크리닝
✓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식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목허가 · ISO13485 · CE IVD

㈜코젠바이오텍
0850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C동 1110호(우림라이온스밸리 1차)
전화 : 02-2026-2150 | 팩스 : 02-2026-2155
kogene@kogene.co.kr | www.kogene.co.kr

임상병리사 등 농어촌 공중보건 복무 "공공보건의료기사" 도입 추진 민주 서삼석 의원, 농특법 및 병역법 등 개정안 발의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들도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해 12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취지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과 연계법안인 '병역법개정안'과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연쇄적으로 제출했다.

서삼석 의원은 육지와 연결된(連陸) 지 10년이 지난 섬 지역은 여전히 개발수준이 열악해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농특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인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상병리사·방사선사, 간호사·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민간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나 간호사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의료기사나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개정안 제2조 등)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정부, 임상병리사 등 전국 보건소 근무 한시인력 2,064명 채용 예정 선별진료소·재택치료 지원 등 배치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건소에서 일할 임상병리사 등 한시인력 2,064명을 뽑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21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확보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금 총 196억원을 지난주 17개 시·도에 교부했으며 전국 258개 보건소에 총 2064명의 한시인력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가 많은 수도권에는 보건소 12명, 비수도권에는 4~8명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인력은 현재 보건소가 담당하는 선별진료소 지원, 예방접종 지원, 재택치료 지원 등 업무 등에 배치된다.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등 의료 관련 종사자를 포함해 행정지원 인력 등 각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지자체별로 자체 채용 절차 진행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보건소가 담당하는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늘고, 재택치료자 관리 업무 강도가 세졌으며 추가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예방접종 지원 업무량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올 3월쯤 본예산으로 확보한 총 378억원 규모의 한시인력 예산을 각 지자체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원대, 2022년도 임상검사과학 석사과정 개설

중원대학교 임상병리학과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역량있는 임상병리-의과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22 학년도 일반대학원 임상병리학과 석사과정(임상검사과학 전공)을 신규 개설했다. 학과 전임교수 5인명과 외부 전문가들이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최고의 역량있는 임상병리-의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상검사과학 전공 대학원은 수면의학, 신경과학, 분자세포생물학, 세포신호전달, 질환동물모델학, 의학통계학 등 특화과목을 개설했는데 총 17개 전공심화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기타 고급 임상화학·임상생리학·혈액학, 임상병리학논문세미나, 고급정도관리학 등) 일반대학원 정원 내 모집으로 이수학점은 4학기 24학점, 대학원 입학생 모두 수업료 30% 감면(직장인, full-time 대학원생 모두)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윤대위 임상병리학과장(043-830-8863)

김부겸 국무총리 ·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 방문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이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에 방문해 방역현장을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위치한 검사소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월드컵공원 검사소는 목동종합운동장 · 잠실종합운동장 · 창동역 등 최근 서울시가 (재)씨젠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추가 도입한 코로나19 검사소 4곳 중 1곳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진단검사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 날 현장 방문에서 김 총리는 "민간 위탁 검사소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보건소의 업무부담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만큼, 진단검사 수요가 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 · 추적 · 치료를 일컫는 3T 전략은 여전히 코로나19 방역의 기본이고, 이번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당부했다. 한편,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운영실태를 보고받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은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인해 피로도가 더욱 가중되는 고초의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2021년! 감상평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의 감상평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4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1) 접수기한 : 2022년 1월 20일(목) 18:00까지 전송
2) 접수방법 :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 (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면허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67호 당첨자]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오미크론 진단, 주요 변이 분류 후 변이 PCR 검사법 개발"

● **이재성, 25595:** 국민의 80% 이상 백신 접종에 참여하면서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 들어 한시름 놓으려 하니 또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인해 "오미크론"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해지는 상황에서 협보에서 상세한 설명과 대응 방안 등을 기사화해서 발빠른 대응을 해준 기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서울특별시 임상병리사회 사진공모전 기사"

● **박명대, 42825:**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임상병리사 선생님들이 구슬땀 흘리며 묵묵히 최선을다해서 자리를 지키고 업무에 임하고 계신데 언론이나 정부, 그리고 원내에서 조차 외면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라 너무 아쉬운 마음이지만 비록 협회에서라도 이렇게 사진 공모전으로나마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는 모습들은 바라보니 든든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많은 격려와 관심이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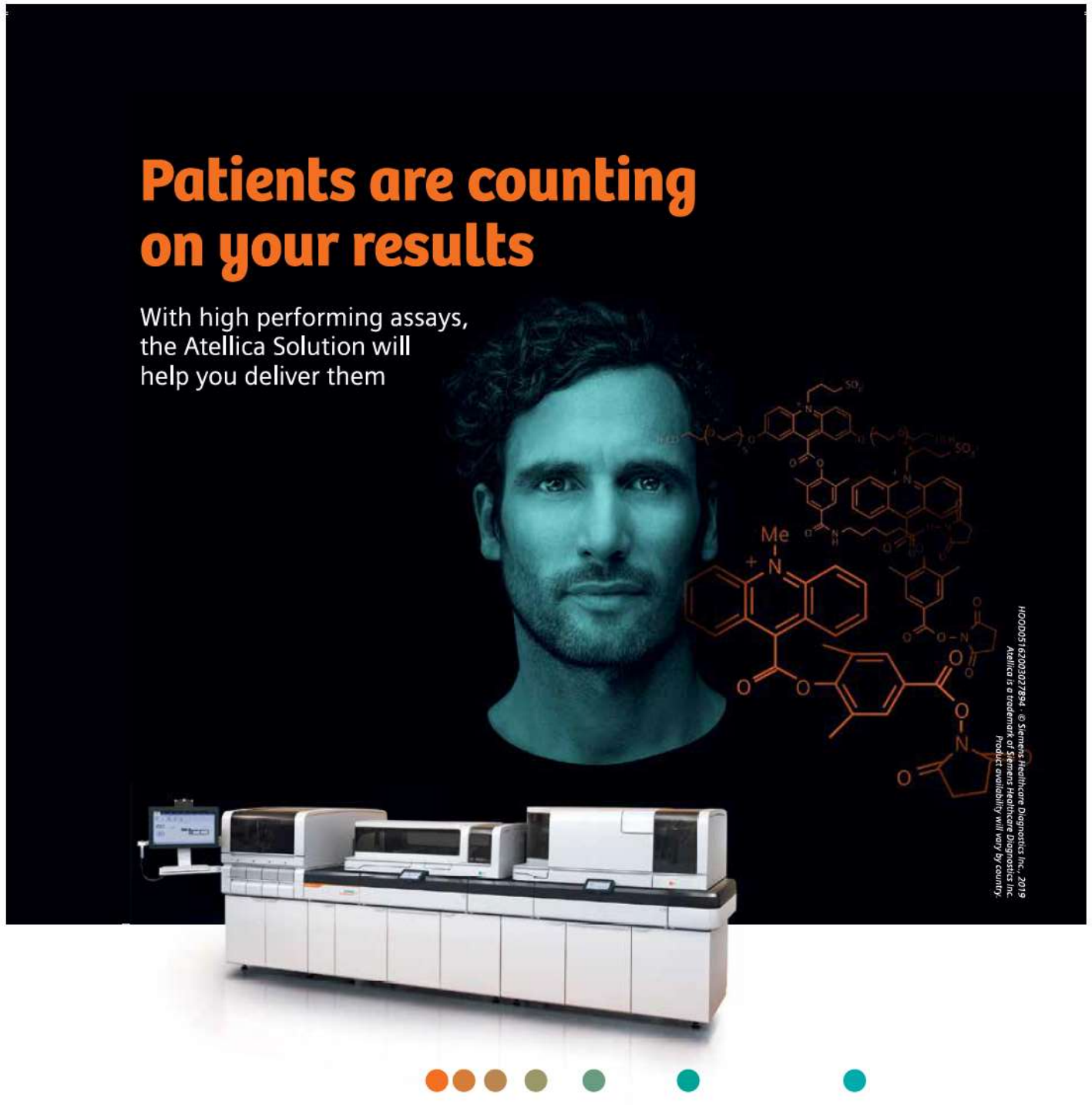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매월 24일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회원동정

△ 원광대학교병원 진단검사학과 실장 발령 – **김숙영 선생님**
△ 예수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실장 발령 – **정송현 선생님**
△ 동남보건대학교 정년 퇴임 – **김대식 교수**



재단법인 씨젠의료재단
Seegene Medical Foundation
글로벌질병검사전문의료기관

부산경남검사센터

광주호남검사센터

(재)씨젠의료재단 본원

대구경북검사센터

카자흐스탄알마티 검사센터(SKL)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은 **검사 품질**의 **완벽**을 **추구**합니다

검사실 자동화(TLA) 시스템 구축

ONE DAY 신속한 결과보고

K-방역 최일선

AI(인공지능) 등 최신기술 도입

씨젠의료재단본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20
부산경남검사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97
대구경북검사센터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619
광주호남검사센터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200
카자흐스탄 알마티 검사센터(SKL) | Almaty, Kazakhstan

검사의뢰 학술문의 **1566-6500**
www.seegenemedical.com